"지금이 韓금융 카이로스… 금투협, 전략 총괄 플랫폼 돼야"

〈기회의 시간〉

인터뷰

황 성 엽 신영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도전, 전략 플랫폼 강조
38년 원클럽맨… 자본시장 파이 확대
대·중소 이해 조율하며 균형점 모색
IMA·발행어음·BDC 생산금융 강화
퇴직연금·ISA 재설계·규제 정밀화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출마한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이 메트로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지금 한국 금융은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있는 가계 자산은 증시와 연금시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기회의 시간)'를 놓치면 또 한 세대가 허비될 수 있습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은 금투협회장 출마 배경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단순 금투업계 민원 창구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골든타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38년 경력 '원클럽맨'인 황 사장은 리테일·IB·WM·자산운용·신탁 등을 모두 경험한 이력과 '여의도 사장단' 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업권이나 몇몇 대형사의 이해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CEO를 'Chief Executive Officer'가 아니라 'Connecting Executive Officer'라고 정의했다. 즉 사내·사외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은 책임자란 뜻이다. 그의 이번 선거 슬로건도 "먼저 경청하고, 행동하며 이끈다(Listening First, Leading with Action)"다.

황 사장은 지난해부터 증권사 사장단 모임인 '여의도 사장단' 회장을 맡아 업계 CEO들과 매달 현안을 논의해왔다. 그는 "매달 업계 CEO들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현장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형사·중소형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균형점을 찾는 경험이 금투협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이 금투협이 맡아야 할 첫 역할로 꼽은 건 IMA·발행어음·BDC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강화다. 그는 대형사는 모험자본 공급과 신시장 개척을, 중소형사는 지역·초기기업 금융을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연구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장기 어젠다에 대응할 협회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금·세제 개편은 더욱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지수 5000 자체보다 중요한 건 '5000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경제 체력'"이라며, 초고령화·저성장·부동산 편중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는 장기투자인데,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며 TDF·밸런스드펀드 중심 재편과 상품 변경 심의 단축을 요구했다. ISA 역시 "청년·신혼부부·마이너스통장 세대가 중·장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계좌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한 '주니어 ISA'로 생활 속 장기투자 통로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최고세율 25% 수준을 적극 지지한다"며, 배당 확대가 소비·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꼽으며, "사고가 날 때마다 모든 상품과 투자자에게 규제를 씌우면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중의 사례를 들며 규제의 정밀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작은 건 풀고, 큰 건 확실히 막는 방식이 시장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금융 언어'라고 했다. 약관·설명서가 감독 리스크 회피용 문장으로 가득한 현실을 지적하며, 협회가 쉬운 용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 환경에 대해 그는 미·중 갈등, AI 경쟁, 고령화·저성장이 동시에 얽힌 "사방이 편할 게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은행 중심 대출경제에서 투자은행 중심 자본시장 경제로 넘어갈 '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을 "민원 창구를 넘어 시장·정책·연금·세제 과제를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정리자·조율자'"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황성엽 체제에서 금투협은 은행 중심 금융을 넘어 자본시장 중심 구조로 가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퇴직연금 고수' 실적배당 80%로 운용

1년 수익률 38.8%… 평균 최대 9배
주식형 70%·대기자금 8.6% 비중
국내 테마·해외 빅테크 ETF에 집중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가입자,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80% 가까이 유지하며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 II -연금 고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기'에 따르면 고수들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8.8%,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평균(1년 4.2%, 3년 4.6%)의 3.5~9.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3개 권역 대표 금융사에서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인 확정기여(DC)형 가입자를 선별한 뒤, 연령대별 수익률 상위 100명씩을 뽑아 총 1500명을 '퇴직연금 고수'로 정의했다.

금감원이 이들의 자산 구성을 분석한 결과, 실적배당형 비중은 79.5%에 달해 일반 가입자와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반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대기성 자금도 평균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실적배당형 가운데서는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1%로 핵심 투자처로 나타났다.

혼합채권형 펀드 비중이 2번째로 높은데, 이는 퇴직급여 법령상 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준수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투자 지역별로는 국내 펀드 비중이 61.6%로 해외(31.8%)의 두 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수들은 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펀드에 투자된 적립금은 조선, 방산, 원자력 등 테마형 상품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펀드는 미국 빅테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비중이 가장 높았다.

펀드 형태별로 보면 ETF가 75.1%, 공모펀드가 24.9%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ETF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고수들의 투자와 관련해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을 적극 활용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지수형 펀드가 아닌 테마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동일 전략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대부분의 근로자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생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고수들처럼 적극 운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8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證,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

국내외 대학생 6298명 참여
총 1770만원 장학금 수여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제14회 뱅키스 대학생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대학생 6298명이 참가했다. 이 중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개인 참가자 20명과 6개 팀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총 177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국내주식 리그 개인 부문 1위는 성준규(동국대·4학년)씨가, 팀 부문 1위는 '세투연자산운용B' 팀이 차지했다. 해외주식 리그에서는 김병주(전주대·3학년)씨와 '경부경성대전자과' 팀이 각각 개인 및 팀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 중 개인 수익률 상위 5명에게 향후 2년간 한국투자증권 입사지원 시 1회에 한해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채용 연계형 인턴 지원 시에는 인적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AI 조정에도 서학개미, 반도체 쓸어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미국 기술주 전반이 인공지능(AI) 버블론으로 흔들리는 사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 국면에서도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종목까지 적극적으로 담으며 AI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1월 19~2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로 3억5878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AI 버블론으로 인해 주춤하는 미국 증시에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선호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사들인 종목도 알파벳(3억2669만달러)과 엔비디아(1억9165만달러)로 AI 관련 종목에 투심이 쏠렸다. 알파벳은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C(GOOG) 주식도 4558만달러 순매수했으며,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그래닛셰어즈 2.0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도 5332만달러 담았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고평가 우려로 인해 AI 관련주의 조정이 두드러졌다. 하지마 서학개미들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달 들어 20일(현지시간)까지 엔비디아는 10.8%, 마이크로소프트 7.6%, 오라클은 25.0%씩 떨어지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1% 급락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 3.0 관련 기대감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고개 들면서 미국 증시도 다시 강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지난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5.7% 급등했다.

특히 24일에는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6.31% 급등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더불어 기술주 전반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도 2.05% 올랐다.

반도체 3배 ETF, 지난주 순매수 1위
알파벳·엔비디아 등 빅테크 매수 확대
오라클·브로드컴 실적이 반등 변수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성적 증명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오라클, 브로드컴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이 반전 흐름을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밸류체인 주가 전반에 기술적 부담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든 가격이든 이를 소화할 조정은 필요했었던 상황"이라며 "12월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위협을 제어할 수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변수는 후퇴된 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며 반등 트리거 중 하나로 보인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